

# 이제는 대통령과 정부의 시간

기고

김미남

전 청와대 행정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11일 강원도를 찾아 19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민생토론회를 하는 이유를 직접 설명했다. 정책 공급자가 아닌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각 부처와 부서의 벽을 허물어서 국민들께서 빨리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그렇다. 대통령의 평소 말과 생각처럼 지역과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또한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소멸이라는 지금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일극구조를 깨고 지방의 도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가 광주와 전북에서도 민생토론회가 시급한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에도 민생토론회를 계속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했다. 지난 5월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서에서는 “아직 개최하지 못한 경북·전북·광주·제주 등 4개 지역에서 곧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후 6월 20일 경북지역은 민생토론회를 마쳤다. 이제 남은 곳은 광주, 전북, 제주 단 3곳뿐이다.

지금까지 광주 민생토론회가 늦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를 불문하고 대통령실과 중앙정부의 잘못이 클 것이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 지역의 어려운 현안을 폭도하고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또한 수수방관하면서 반기했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광주시에도 있었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3월 14일 전남과 공동으로 개최 예정이었던 대통령 민생토론회를 사실상 거부하는 발언을 하면서 전남 단독으로 시행되었다. 그동안 민생토론회를 치르면서 두 광역단체를 한꺼번에 모아 개최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강원도의 사례까지 들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이유에서다.

강 시장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는다. 다만 지방정부가 대통령실과 중앙정부에 대립각을 세워서 이득 될게 무엇이 있겠는가? 대통령실과 정부에 사전 물밑 작업이 부족했던 건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광주시의 성급했던 판단도 문제다. 아무리 원통하고 분통했을지언정 141만 시민을 대표한 광주시는 대통령실과 정부에 꾸준히 설득하고 읍소해 나갔어야 한다. 그런 방법 외에 권한이 없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무엇이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나간 잘잘

못은 뒤로한 채 지난 5월 24일 강 시장은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운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명연 정부1비서관을 방문하여 차례로 만났다. 광주시 단독 개최를 고집했던 당초와는 달리 전향적인 자세다.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강 시장의 적극적인 방문활동은 높이 평가하고 칭찬할만하다.

광주시는 대통령이 약속한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표도시, 복합쇼핑몰 유치, 도심 광주공항 이전 등 핵심 공약과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숙원사업이 추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과 함께 광주의 민생과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민생토론회를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하자”고 제안도 했다.

전남과 공동 개최를 거부했던 광주시는 여러 가지 우려곡절을 거치면서도 전남 단독 시행에 따른 만회에 나섰다. 특히 민생토론회 개최를 위해 그동안 대통령실과 중앙정부를 오가는 등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이제는 대통령과 정부의 시간이다. 그동안 광주는 민생토론회 개최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과 정성을 다해왔다. 할 수 있는 만큼 모두 다했다. 남은 건 대통령과 광주가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뿐이다. 광주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되길 학수고대하며 기대한다.

## 社說

# 지나친 규제에 취지 못살리는 지정기부

### 활성화 위해 자율성 보장해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각계에서 도입을 요구해 왔던 ‘지정기부제’가 도입됐지만 정작 사업 참여는 저조하다는 소식이다. 시행 초기 ‘반짝’ 증가세를 보였던 고향기부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줄고 불황마저 이어져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다고 한다. 기부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이라는 당초 취지를 잃은 채 지나친 규제와 제약으로 허송세월을 하는 것은 아닌지, 모두가 고민해야 할 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등록된 전국 자치단체 지정기부 사업은 광주와 경남 각 4건, 충남 2건, 전남과 울산, 서울 각 1건 등 모두 13건으로 나타났다. 지정기부제가 지난해 시행된 고향기부제의 핵심 개선 과제였던 것을 감안하면 미미한 성과다. 지정기부는 각 지자체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발굴한 사업을 시민이 살펴보고 직접 기부하는 방식이다.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자신이 낸 기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향기부제 초

기부터 각계에서 도입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행안부가 사업 발굴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에 개입하는 등 자율성이 제한되면서 지정기부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가 지자체의 사업계획서를 정해진 양식에 맞춰 가공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의도를 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도 행안부의 과도한 규제와 제한을 지키면서 지역의 특색을 담아낸 지정기부 사업을 발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도 ‘공적 플랫폼에 얽매어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지정기부의 취지는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금이 사용되는 방식을 직접 선택하도록 해 기부 참여를 높이는 데 있다. 지역 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의미도 크다. 이런 지정기부에 ‘공적 플랫폼’을 고집하고 자율성마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면서 제약이다. 고향기부제를 활성화시키는 지름길은 기부자에게 만족감을 주고 도덕적 성취감을 맛보도록 하는 데 있다.

# 양식어가 폐업 부르는 전기료 인하해야

### 2년새 37곳 폐업 잇따라

완도지역 육상양식업계가 전기요금 폭탄에 줄 폐업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전의 다섯 차례 전기요금 인상이 원인으로 꼽힌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수산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식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농사용(을) 전기요금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52.7% 인상됐다.

한전은 2022년 4월과 10월, 2023년 1월, 5월, 1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이 기간 농사용(을) 전기요금은 18.8원/kWh 인상돼 산업용 등 다른 계약 용도별 전기요금 인상을 대비 10%포인트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기요금은 2021년 288억 원에서 2022년 323억 원으로 약 35억 원 증가했고, 2023년에는 591억 원으로 2022년 대비 83% (267억 원) 증가했다. 요금 단가는 2021년 46.9원/kWh에서 2022년 51.6원/kWh, 2023년 94.4원/kWh으로 급등했다.

24시간 해수 펌프를 가동하는 등 전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육상양식어가에 전기요금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지역 양식어가들은 주요 경비 중 ‘전기료’ 부담이 가장 크다는 의견이다. 실제 완도와 제주 관내 41개 육상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과 주요 경비비, 수익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기료는 56.7%, 인건비는 31.7%, 종묘·사료비는 20.3% 증가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50곳의 육상양식장이 문을 닫았다. 전기료가 오른 2022년과 2023년에는 37곳이 폐업했다. 비공식 폐업 사례를 감안하면 양식업 전체가 도산 위기에 내몰릴까 걱정이다.

국가 중요 기간산업에 부여되는 전기요금 특례 대책을 양식장에도 적용해야 한다. 도축장, 미곡종합처리장, 천일염 생산시설 등이 전기요금 특례 대책 대상이다. 양식어민들이 사료값과 인건비에 이어 전기료까지 걱정해야 하니 사실상 ‘3중고’다. 양식어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전기요금 특례 대책 적용이 절실해 보인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2024 한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 중인 해군 이지스구축함 울곡이이함이 10일 미국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고속으로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향해 SM-2 함대공유도탄 실사격을 하고 있다. 해군은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적의 항공기 및 유도탄이 함정으로 접근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SM-2 함대공유도탄 실사격은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밝혔다. 해군 제공

### 서석대

며칠 사이 흐렸던 하늘이 점점 개는 듯 하다. 시나브로 장마가 끝나가는 모양이다. 올해도 기록적 폭우로 마을과 도로가 물에 잠기고 집과 산이 무너져 목숨을 잃는 등 사건 사고 소식에 심란한 마음이 잠기다가, 문득 윤희길의 소설 ‘장마’가 떠오른다. 소설 장마는 6·25전쟁 당시 이념으로 엇갈린 한 집안의 비극적인 운명을 그린 분단 문학의 걸작으로 꼽힌다. 한(恨)으로 응어리진 ‘분단의 비극과 갈등’이 지닌 장마로 비유되는 것이, 꼭 여전

히 이분법적 남녀갈등, 진영갈등으로 점철된 한국사회 일상과도 여태껏 맞물리는 듯하다. 소설은 좌우의 이념을 모르는 어린 소년 ‘나’의 관점에서 서술된다. 6·25전쟁으로 ‘나’의 외가 식구들이 주인공의 집에 피난을 온 상황에서, 사돈댁에 신세를 지고 있는 외할머니에게는 남한 국군 소위가 돼 전사한 아들이 있고, 집을 내어준 친할머니에게는 빨치산이 돼 현재 실종상태인 아들이 있다. 긴 장마가 지루하게 계속되던 어느날 외삼촌이 전사했다는 연락이 닿고 외할머니는 아들을 잃은 충격에 빨치산에 대한 저주를 퍼붓는다. 산속에 숨어 지내는



빨치산 아들이 있는 친할머니는 크게 분노하는데... 전쟁의 상황에서 상반된 이념을 선택할 수밖에 없던 시대의 단상은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라는 마지막 구절과 함께 마무리 된다.

“밭에서 완두를 거두어들이고 난 바로 그 이튿날부터 시작된 비가 며칠이고 계속해서 내렸다. 비는 분말처럼 몽근 알갱이가 되고 때로는 금방 보폭이라도 뚫고 쏟아져 내릴 듯한 두려움의 결정체들이 되어 수시로 변덕을 부리면서 칠월의 밤을 온통 물결레처럼 질펀히 적시고 있었다.”

소설에서는 장맛비를 이렇게 묘사한다. 장마를 생각하면, 더는 소설 어떤 은유적 표현이나 시원한 여름 풍경이 떠오르지 않는다.

최근의 장마는 이미 재난으로 변했다. 이상기후로 폭우가 내리는 날이 더욱 길어지고 있다. 몇 해 연속 시간당 100mm 안팎의 비를 쏟아내 ‘기록적 폭우’라는 말이 이전 예삿일이 돼버렸다. 올해 역시 침수와 고립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장마 뒤 찾아올 폭염도 걱정이다. 인간이 자초한 자연재해에 한없는 무력감이 든다. 도선인 취재2부 기자

全南日報	시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